예배 때 떠드는 아이 비판

(롬14:1~12)

1.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2.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3.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라
4.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10. 네가 어찌하여 네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네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예배 때 떠드는 아이 비판>이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지난 주 2부에 드려지는 예배에 참석을 했습니다.
주일이면 저는 어느 교회에서 설교를 하지 않고, 그냥 일반교인의 입장에서 예배에 참석을 하는데, 2부 예배인 9시에는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참석하시지 않습니다.
주로 2층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2층이 강대상을 향해서 디귿자 형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2부에는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2층의 양쪽 날개가 다 비어있습니다.
근데 서너 살쯤 되는 남자아이가 계속해서 그 빈 좌석 사이를 뛰어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2층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가 뛰는 것을 보고 두리번거립니다.
왜 두리번거리겠습니까?
그 아이의 부모를 찾는 거예요.
대체 부모가 누구이기에 예배시간에 아이가 저렇게 뛰어다니는데도 그냥 방치해두고 있을까?
아무도 뛰어다니는 그 아이를 직접적으로 원망하고 태도가 잘못 되었다고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습니다.
서너 살 된 아이들이 다 그렇죠, 문제는 부모입니다.

우리가 고속버스나 기차나 비행기 같은 데서 갓난아기들이 막 우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아기려니 하고 이해를 하지만 너무 심할 때는 힘들고 피곤하며 짜증이 나지요, 그럴 때 우리의 원망과 짜증이 누구를 향합니까?
악을 쓰며 우는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그 갓난쟁이한테로 향하지 않습니다.
대체 엄마가 어떻게 아이를 보고 있기에 저렇게 아이가 울고 있느냐? 엄마를 보게 되고, 엄마를 향해서 원망과 짜증이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이 점을 잘 살펴보면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할 때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예배시간에 떠드는 이 아이의 경우를 비유로 해서, 그 뜻을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는 말 앞에 어떻게 항변하는가 하면, '박 근혜 정부가 잘못 하는 게 뻔히 보이는데, 야당이라고 하는 작자들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망각한 채로 종북좌파를 돕는 게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우리가 비판하지 않을 수 있느냐?
정말 내 눈에 볼 때 못생긴 게 틀림없는데, 어떻게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느냐? 그러면 못생긴 얼굴을 판단하지 않으면 예쁘다고 봐야 하느냐? 어떻게 보라는 말이냐?
문제는 보이는 데에 있다 이겁니다.
잘못이 보이고 못난 것이 보이고 모자라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비판하고 판단한다고 얘길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님과 사도바울이 비판하지 말라고 말하고 계시는 그 이유를 보면, 비판이 생기는 이유가 뵈는 게 없어서 비판하고 있기 때문에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비판한다고 얘기하지만, 주님과 사도바울과 성경은 '너희가 비판할 때는 뵈는 게 없는 막가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비판이 나오려고 하는 순간이 되면 내가 지금 뵈는 게 없어서 마구 행동을 하는 막가파가 돼있구나 라는 걸 깨달아라!' 이 얘깁니다.
'뵈는 게 없는, 그래서 행동이 자의적으로 제멋대로 내갈겨지듯이 나오는 상태가 아니고서는 비판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못을 박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참으로 비판이라는 게 어려워요.
비판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비판을 안 하기가 참으로 어려운데, 그렇게 쉽게 나오는 우리의 비판과 판단의 내막이 아주 불신앙적이며 파괴적이고 소모적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결론부터 내리면, 비판은 뵈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뭐가 안 보이는 겁니까?
예배 때에 서너 살 된 어린아이가 뛰어다니며 떠들면 우리는 부모를 찾습니다.
비유적으로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언제나 우리가 사람을 비난할 때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비난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떠드는 아이의 부모를 찾듯이 지금 내가 눈앞에 보고 있는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되는 그 사람의 부모격인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이 직접 나간다는 것은 내 마음에 그 사람과 괄호로 묶여있는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사람에게서 하나님을 못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그 사람을 보는 동안에 하나님이 안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군데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비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비판이 일어나고, 비판하는 대상과 연관 지어서 하나님이 안 보일 때 비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이들이 떠들 때는 부모를 찾는데, 우리 이웃이 잘못한 거라고 비판할 때는 왜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걸까요?
참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안 되는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내 이웃이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전부 하나님 책임인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이 태어나게 된 것, 그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를 하나님께서 관장하고 계시고 섭리하고 계시고, 그 사람의 생김새 그 사람의 성격, 그 사람의 후천적인 성격이 형성될 수 있기 위한 그 사람이 태어난 가정과 부모, 모~든 백 가지 천 가지 만 가지가 종합되어서 그 사람이 형성되고 있는데, 그렇게 형성되게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설령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모를 수는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지 않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생사화복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니까.
그러므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고, 또 아주 불신앙적으로 내 마음에서 하나님이 뵈지 않기 때문이라 이겁니다.
이렇게 두 군데에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막가파가 됨으로써만 가능한 것이 비판이에요.
업신여기거나 판단하는 거라 이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로마교회 내에서 어떻게 소식을 바울이 전해 듣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바울선생 귀에 들리는 로마교회의 문제는 고린도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채소만 먹겠다는

사람들이 있고,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믿음이 약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규정을 합니다.
믿음이 약하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자유로움을 느낄 수 있는 경계가 아주 좁다는 의미에요.
당시 우상의 제물이 로마에 없었겠습니까?
그런 우상의 제물이 시장에 나와서 팔리고 있는 상태에서 차라리 고기를 안 먹겠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이유는, 구약에서부터 정결법에 의해서 부정한 음식과 먹어도 괜찮은 음식이 구분되어 있었고, 또 절기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 안식일과 주일, 그 외에 다른 구약에서 정한 명절들을 계속 지켜나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나 또 믿음의 경계가 넓어져서 믿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꼭 유월절이다 초막절이다, 이런 명절을 지키지 않더라도 주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지켜갈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신앙생활을 했는데, 문제는 각자 자기의 믿음대로 살면 좋은데, 믿음이 약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비판합니다.
그들이 선을 넘어 일탈행위를 하는 것으로 여겨서 비판하고, 반대로 고기를 마음대로 먹는다든지, 구약의 규정들, 선악을 판단해주는 율법이 아니라 율법의 행위규정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은 선악 간의 구분이 아니라,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것, 예를 들어 사도바울이 결혼을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지만, 나처럼 안 하기를 바란다, 이런 문제들에 있어서 좀 더 자유로운 사람들은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믿음이 고지식하다, 믿음이 약하다'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비판하는 일이 생겼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이 지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 써내려가는 로마서의 마지막부분에서 비판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비판의 얘기도 역시 믿음에 관한 이야기의 연장선상에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판은 믿음과 정반대에 서게 되는 믿음에 대해 상극인 마음의 상태입니다.
믿음이라는 게 우선 마음의 문제 아니겠어요?
그 마음으로부터 행위까지 뻗어 나오는 것이 믿음인데, 비판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는 믿음의 마음의 상태와는 완전히 상극이라는 것이에요.
상극인 첫 번째 이유가 불신앙적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파괴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사도바울이 비판이라고 하는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우리가 읽은 4절에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으매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 한 사람 한 사람의 실존상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긴가 하면, 아까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한 것처럼,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괄호로

묶여있는 것으로 보는 겁니다.
오늘 얘기의 대상들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물론이겠지만, 이 얘기를 확대시켜보면 모든 사람이 사실은 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과 괄호로 묶여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라보고 계시는데 자기 자신이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과 괄호로 묶여있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주인과 하인의 관계를 비유로 말씀하시는 건데, 이 주인과 하인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이 이 하인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이 하인에 대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주인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하인이 하는 행동이나 말을 보고선 비판할 자격이 없는 것은 그 말이나 행동이 다~ 그 하인이 하인 되게끔 하는 것이 주인에게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얘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1:1로 괄호로 묶여있는 상태로 보는 거예요.
단, 믿는 사람은 십자가를 향해서 다른 것에 대해 죽으므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돌릴 수 있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있지만 그 사람 역시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죽는 순간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이고, 사는 과정도 역시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비판에 대한 이야기가 불신앙적인 거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때 떠드는 아이를 우리가 바라볼 때, 절대로 그 아이에 대해서 직접 판단을 하지 않고 그 아이의 부모를 찾는 것과 똑같은 마음으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야 된다는 얘깁니다.

불신앙적인 이유는 태초에 에덴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최초로 범죄 할 때의 현장이 스스로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됨으로써 성립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 판단과 비판이라고 하는 것이 원죄의 산물이고 신앙과 아주 정면으로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판단하면서 죄가 들어온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는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판과 판단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신 겁니다.
판단을 내 스스로 하게 된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상황이었고, 하나님에 대해서 등을 지고 있는 상황이었으며 아담과 하와의 마음에서 하나님이 지워져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판단을 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누구를 판단한다든지 업신여기게 될 때는 반드시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난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끔하게 지워진 겁니다, 에덴 바깥으로 쫓겨난 아담과 하와의 마음상태처럼.
하나님을 내 마음에서 말살시키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을 때 나오는 막가파의 행동이 비판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리에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지워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누구를 향해서든 비판이 나올 때는 나는 이미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이고 서야 가능한 겁니다.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죽인다는 것,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하나님을 죽일 수는 없지만 내 마음에서 하나님을 말끔히 지워버릴 수는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망각해버리는 것, 그래서 불신앙적이라는 거예요.
참으로 지독한 불신앙이죠, 그런데 이렇게 비판하지 않고 산다는 게 참 어려워요.

그리고 또, 이 비판이라는 것은 굉장히 소모적이고 파괴적인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아주 오래 전에 이 판단이라는 말과 비판이라는 말 속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판(判)자에 대한 한자의 의미를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절반 반(半)자에 칼 도(刀)자가 붙어서 판(判)자가 됩니다.
그래서 판단이란 절반으로 잘라낸다는 겁니다.
그리고 판단에서 단(斷)자도 끊을 단이에요, 끊을 단, 그리고 비판의 비(批)자는 바르게 고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바르게 고치기 위해서 잘라낸다는 겁니다.
여기에 엄청난 소모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판단하고 비판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음을 그 사람에게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마음은 하나님께만 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만 드려야 될 마음을 빼기고 있어서 소모적이고, 일단 하나님을 향해서 내 마음을 드리지 못할 때 일어나는 일이 뭐냐 하면, 아담이 판단하게 되면서 자기에게 허락된 에덴을 찢어버리게 된 거나 마찬가지로 아담의 삶에서는 에덴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에덴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조금 바꿔서 얘기하면 허락된 에덴을 자기가 차버린 것이고 망가뜨린 것이고 파괴한 것입니다.
이 얘기는 다시 말하면 비판하고 있는 마음속에는 에덴, 기쁨이 없다는 겁니다.
내 모든 기쁨이 파괴돼버립니다, 내가 비판하고 있는 동안에 나의 비판이 상대방에게 꽂혀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쁜 마음을 준다든지 손해를 끼치기 이전에 비판을 하고 있는 나 자신에게

먼저 기쁨이 파괴되고 감사가 파괴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9절에 사도바울이 말씀합니다, '죽으시고 살아나셔서 우리의 주가 되신다' 그러므로 죽어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산다는 이 모든 말씀이 다 괄호로 묶는 거예요.
하나님과 내가 괄호로 묶이는데, 어떻게 내가 그 괄호 안에서 하나님을 향할 수 있습니까?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기억함으로써.
그러니까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잘못이 보일 때 거기에 딸려 들어가면 에덴이 찢어지고 망가지며 감사가 상실돼버립니다, 소모적이고 불신앙이 되며, 내가 하나님을 마음에서 지워버리게 됩니다.
그럴 때 얼른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님과 함께 연합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 내 마음이 비판하고 싶은 대상으로부터 거두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거예요.
주님께서도 대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 율법사들을 비판하지 않으셨느냐?
주님은 비판하신 적이 없습니다.
비판할 것이 많지만 비판하지 않으시고 마음을 언제나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을 때, 만나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님께 넣어주셨고, 주님께서 그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선지자들도 사람을 비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 앞에서 직고하리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무슨 얘깁니까?
오직 내가 만나는 이웃에 대해서 심판하고 판단할 분은 하나님 한분이시라서 내가 그 사람을 직접 비판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고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만나는 이웃에 대해서 해야 될 말을 하나님 마음속에서 비판하시면서 내 속에 넣어주셔서 내가 말을 할 수는 있지만, 내 마음이 그 사람의 잘못을 보고 비판하는 것은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보다 십자가의 주님을 먼저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게 될 때,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워지고, 그렇게 된 마음속에 비판하는 사람이 되면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이 기쁨의 동산이 내 마음에 회복되고 감사가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예배 때 떠드는 어린아이를 보면 우리는 그 부모를 찾습니다.
그런 것처럼 혹시 내 눈에 잘못된 점이 보이는 이웃을 만나게 되면, 얼른 그 사람에게 눈길을 주고 계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나 자신의 마음도 주님을 기억하므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리는 신앙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